

#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쏘아올린 ‘대학자율·민주화’라는 작은 공

명복 기리는 추모 현수막 학내 곳곳 설치돼  
교수회장, “대학자율화 위한 개선안 제시할 것”

“아빠는 약당도 못데. 약당은 돈이라도 많지”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의 좌절과 애환을 담은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한 대목이다. 아들 영호가 무기력하고 경제력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향해 뱉은 말이다. 그 뒤 아버지는 공장 굴뚝 위에 올라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지상으로 떨어진다. 뒤집을 수 없는 가난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소설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취업률을 앞세운 평가와 사업단 지원 등 재정과 돈으로 대학을 돈으로 통제하는 지금, 몸을 태우는 저항 끝에 굴뚝 위에 올라서 대학자율·민주화를 쏘아올리고 약당이 되기를 거부한 아버지가 산화됐다.

8월 17일 오후 3시 부산대 본관 4층에서 故 고현철 (국어국문) 부산대 교수가 투신했다. 총장 간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오랜 저항 끝에 내린 마지막 결단이었다.

부산대는 끝내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 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고 교수는 대학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해서는 총장 직선제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희생한다고 유서에서 밝혔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부산대 내의 학내 여론은 물론이고 지역·중앙 언론도 대서특필했다. ‘교육부 ‘총장 간선제’ 압박, 부산대 교수 투신 참극 불렀다’, ‘누가 고현철 교수를 죽였을까’, ‘고현철 교수가 죽음

으로 알리려 했던 불편한 진실’ 등 수많은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학내에도 고 교수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됐다. 교수회, 독일학과·중어중문학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등이 고 교수의 뜻을 공감하며 그의 명복을 빌었다.

3일 뒤 20일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연합회 (이하 거국련)는 총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결의했다. 거국련은 “직선제 총장선출 규정으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선제로 선출한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명 제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에 참가한 우리 대학 김철수(전산통계) 교수회장은 “대학선진화 정책에 가려 잠시 잊혀졌던 대학자율성 회복의 불씨를 당겼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고 교수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학자율화를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총장직선제는 전국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차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산업화 시대 노동과 인권에 대한 화두를 던져 실질적인 운동을 이끌어내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고 교수가 쏘아올린 대학자율·민주화라는 작은 공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민 기자



‘우리 학교는 지금 공사중’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문 앞에서 여름방학동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9월 말 완공에 정이며 완료 후 비기림막이 설치돼 우천시 학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둘러 수강·입주신청하는 학생들… ‘시스템 오류 벽’에 막히다

학생생활관 (관장 김봉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과 정보통신원 (원장 이상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 지난 8월부터 이틀간 일어난 전산상의 문제로 입주신청과 수강신청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2면

19일 학생생활관측은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전산시스템 오류로 입주실 신청에 불편을 드린점 양해바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지난 18일 10시에 진행될 생활관 입주 신청이 프로그램의 오류로 약 2시간 가량 지연된 것에 대한 사과의 내용이 담겼다.

21일 정보통신원은 학교 메인 홈페이지

에 ‘지난 8월19일 9시부터 15분간 수강신청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과부하로 인한 문제로 동시접속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긴급조치 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글을 게시했다. 김해건 기자

##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오늘 11시 아라뮤즈홀에서 거행

학사 451명·석사 229명·박사 25명

우수논문상 및 총장상 수상 예정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5일 11시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학사 451명, 석사 229명, 박사 25명 등 총 705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수여받는다.

총장상 및 표창, 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논문 △교육대학원(석사) 박샘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경영대학원(석사) 오창일 (경영학과 마케팅관리전공) △행정대학원(석사) 한혜숙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표창장 △교육대학원(석사) 윤영식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총장상 △박윤귀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학장상 △양지은 (경영학과) △조아영 (언론홍보학과) △김은주 (경영학과) △김하나 (관광경영학과) △이종률 (회계학과) △손연희 (무역학과) △김동유 (경제학과)

△현소라 (관광개발학과) △박선주 (경영정보학과) △강승훈 (경영학과(야)) △고지수 (윤리교육과) △송현경 (생물학과) △강병규 (전기공학과) △박진서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정민혜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한편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학사보고 △허향진 총장 식사 △축사 △학사·석사·박사 학위 수여 △상장 수여 △교가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또 학위 수여는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 수여된다.

심소연 수습기자

## 장학금 릴레이 캠페인 진행… ‘아라기부천사’ 모집

‘꿈과 희망의 장학금 릴레이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 지난 18일부터 허향진 총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번 릴레이는 재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장학금을 발전기금으로 모금하는 기부캠페인이다.

기부 방법은 최초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고 그 기부자가 후원할 수 있도록 앞선 기부자가 홍보까지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여자를 ‘아라기부천사’로 부르고 1004명 참여를 1차 목표로 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기금 모금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접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장학금 기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754-8251~3)으로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김해건 기자

## 2014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특집호 지면 안내

보도

〈특별기획〉

매년 반복되는 전산시스템 오류  
심층 인터뷰-곽호영 컴퓨터공학과 교수  
학생생활관 직원 ‘적반하장 태도’ 논란

>> 02

보도

2016년 학사 개정 미리보기  
-우리 대학 졸업생 절반 이상 A학점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사  
의류학과, 제18회 졸업전시회 개최

>> 03

제59회 학위수여식 명단

학사 451명·석사 229명·박사 25명

>> 04

제59회 학위수여식 명단

학사 451명·석사 229명·박사 25명

〈아라초대석〉장한라 시인 인터뷰

〈동문칼럼〉강경민 제주대 연구원

>> 05

지역 사회

〈칠성동 문화의 거리 기획〉

땅 빈 거리,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소설 속으로의 여행〉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의 사람

발자국 유적지를 가다

>> 06

오피니언

〈교수시론〉희망 그리고 백일몽

〈기자수첩〉수고했어, 오늘도

〈독자기고〉

〈사설〉

>> 07

문화

책과 영화로 졸업 여행을 떠나다

>> 08

## 작은 정성과 참여가 제주대학교의 저력을 크게 키웁니다

ARS(060)는 한통화에 3000원이 적립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학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금액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ARS제대사랑 수신기금

발전기금에 관심은 있으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한 통화로도 기금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 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RS(060-700-1020)은 한 통화 당 3,000원 금액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자동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 방법 : 전화정보교환서비스(ARS 060-700)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보이용료 및 수납대행료 납부

· 번호 : 060-700-1020(대학 신주소 제주대학로 102표기)

· 후원금 : 1통화당 3,000원

· 안내멘트 :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소리가 난 후 부터는 전화사용료 외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후원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십시오. 삐~~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졸업생 절반 이상 A학점… 학사제도 바뀐다

간호·수의·의학과 외 내년부터 B- 이상 성적 재이수 불가

거점대 중 A학점 비율 서울대 뒤이어 두 번째로 높아

<2014년 기준>

방학동안 학기 중에 못한 취미생활도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던 생명대 소속 3학년 A씨는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오랜 만에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2016년 달라지는 학사제도 안내'라는 팝업 창이다. 내년부터 C+이하 성적의 과목만 같은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불가피하게 B- 맞은 과목 두 개 정도가 있어 다시 수강할 요량이었었는데 계획을 다시 세우자니 막막했다. A씨는 “학점인플레이가 진짜 심각한가?”, “A~B 학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학점을 맞은 학생들이 과연 재이수를 할까?” 등 의문을 가졌다. A씨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실제 대이터는 놀라웠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제주대는 2012년부터 3년간 졸업생 성적 백분을 평균 점수가 76.2~88.97~89.19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와 같이 A학점(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51.9%(거점대학 3위)~51.1%(3위)~54.2%(2위)를 차지했다. 반절이 넘는 졸업생이 A-이상의 학점을 받고 졸업한 셈이다. 더불어 학사과의 재이수 현황 분석에 따르면 고득점에 속하는 A+~ B- 학점을 받은 학생 중 일부가 재이수하는 사례가 실제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학사과는 학점 인플레이 방지와 올바른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이수 관련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올해 4월 10일 평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같은 달 15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C+이하 성적만 재이수 가능하다'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또한 'F또는 U 학점을 제외하고 18학점의 범위에서 재이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간호학과, 수의학과, 의학과는 새 개정안에 제약

받지 않고 기존대로 재이수할 수 있다. 학사와 교양종 수업팀장은 “2014년 졸업생 중 A학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대를 제외하고 전국 거점대 중 1위일 정도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이수 관련 학칙이 우리 대학만 예외적으로 없다”며 학칙 개정의 근거를 말했다. 실제 전국 거점대 중 우리 대학만 재수강 관련 규정이 없었다. 전국 거점대들은 평균적으로 B~C+ 이하 학점만이 재이수 할 수 있다. 그 중 재이수 시 학점의 상한선을 정해 제도를 강화한 곳은 10곳 중 6곳으로 서울대,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경북대(부분 시행) 등이다. 이에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저학년의 경우 이미 내용을 다 아는 선배가 재수강하는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오히려 강화를 원한다고 했다. 한편 고학년의 경우, 군입대나 개인 사정으로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낮은 학점을 맞은 후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재수강할 시 불이익이 온다며 불만을 표했다. 전지민 기자

# “사익보다 공익, 진정한 리더가 되길”

##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사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영예로운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수여 받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정성과 희생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학부모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를 찾아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졸업생들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신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졸업은 학업의 한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 전환기에 직면한 세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이끌 것인가, 낙오하고 퇴보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제 졸업과 동시에 격변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와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은 모든 힘의 근원이자 모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제주대학교에서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교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가장 보람 있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곳 아라캤 퍼스에서 젊음을 불태우며 열정을 바쳤던 학문과의 뜻 깊은 만남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꿈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졸업생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 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역사의 긍정적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새로운 사회로 도약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선배들이 성취해 온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더욱 인간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나, 아니면 생명과 사랑이 매몰된 황량하고 정체된 사회로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역동적 변화를 만들어 낼 때만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든 창조가 고통의 산물이듯, 바람직한 모든 성취는 고난의 대가인 것입니다. 성숙하고 인간적인 우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나보다 남을,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관된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긴 항로는 때로 풍랑을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앞에 실패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성

취들은 결코 '고난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바로 '고난 때문에' 얻어진 것들이었음을 기억하시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젊은 세대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제주대학교의 동문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모교에 대한 열정을 더욱 더 크게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라캤 퍼스에는 지난 시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뜨거운 토론의 열기가 가득 찼던 강의실, 밤늦도록 공부에 열중했던 도서관,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교정,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이곳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곳을 떠나지만, 여러분이 바로 제주대학교의 미래이고, 제주대학교의 앞날은 여러분의 모교에 대한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취가 곧 제주대학교의 성취이며 성장의 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제주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새 비전을 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대학으로의 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결집하여 교육역량과 연구력을 더 끌어올려 글로벌 미래창의 인재상을 양성하는 대학을 만드는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둘러싼 여건들이 급변하면서 한국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별 때일수록 대학 스스로가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만,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애정 없이는 대학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주대학교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넘고 글로벌 명품대학으로 도약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교문을 나서서 졸업생 여러분들도 모교가 더욱 높이 날아오르도록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학위 취득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 4년간의 마침표… 앞으로의 첫걸음

### 의류학과 예비졸업생 35명 제작

### 작품 재해석하는 ‘오마주’ 선보여

의류학과는 지난 18일부터 4일간 박물관 1층과 3층 로비에서 학과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제18회 졸업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박물관 안에는 색다르고 영감을 가질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의류학과 예비졸업생 35명의 예비 디자이너가 제작했다. 예비 디자이너는 6가지의 주제와 3가지의 장르를 담아 패션작품을 선보였다. 전시회의 테마는 오마주이다. 작품들은 기존의 발표된 영화, 디자인, 건축양식, 20세기 패션 스타일로 활용됐다. 이번 졸업생들은 색다른 시각으로 기존의 작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오마주를 표현했다. 전시회 안에는 톨브라운, 로맹릭한 1950년대 패션, 웨딩, 한복, 갑옷, 영화감독 팀버튼, 세계의 건축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 등의 작품으로 선보였다. 예비 디자이너는 이러한 작품들을 재해석하면서 젊은 디자이너들의 감각으로 불거리를 더했다. 심소연 수습기자



전시회에서 팀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재해석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김소희(의류학과 4) 졸업 작품 위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6개월동안 노력했던 공들인 작품을 만들어 뿌듯했다”며 “작품을 본 사람들이 우리의 취지를 알아주고 공감해줘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최유미(회계학과 2) 학생은 “입학한 후 처음 접했던 행사”라며 “평소에 패션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색적인 경험을 받았다”고 말했다.

## KOICA제주센터 설치 협약

제주대·제주도·국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21일 제주도청에서 우리 대학에 KOICA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제주센터)를 설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주센터는 도민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교육 및 새로운 ODA 사업 발굴 정책을 시행한다. 또 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제봉사단 사업을 통칭하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귀국봉사단 지역사무소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앞으로 2년 동안 제주센터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국제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기업과 기관의 참여 지원 및 ODA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 특화 프로그램 발굴, 지역 사회 홍보 및 지역 네트워크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ODA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로 인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지역 인재와 기업의 ODA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규 기자

## 2015학년도 제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b>임정명</b>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미국소설 △학사: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미국소설 △박사: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미국소설 최종 학위 논문명: Henry James의 이상적 삶의 비전 - 현실과 상상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
	<b>장창은</b> (사학과) 조교수-한국고대사 △학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박사: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최종 학위 논문명: 新羅 上古期 高句麗 關係와 政治勢力 研究
	<b>조장희</b> (경제학과) 조교수-응용미시경제학 △학사: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 물리학·수학 △석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최종 학위 논문명: 한국 소매업의 현대화와 구조변화에 대한 실증연구
	<b>권유성</b> (국어교육과) 조교수-현대시 △학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시) △박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시) 최종 학위 논문명: 1920년대 '조선적' 서정시의 창출 과정 연구
	<b>최대희</b> (국어교육과) 조교수-국어사 △학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석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박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최종 학위 논문명: 17세기 국어의 이름다디 구조 연구

	<b>김효정</b> (음악학부) 조교수-현악 △학사: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바이올린 △석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박사: University of North Texas 최종 학위 논문명: Combining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and Recent german Techniques in ISANG YUN's Kontraste: Zwei Stucke Fur Violine Solo(1987)
	<b>김대영</b> (교육학과) 조교수-교육과정 △학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박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urriculum & Instruction Curriculum Studies 최종 학위 논문명: A History of Curriculum Thought in South Korea
	<b>이소영</b> (사회교육과) 조교수-법학이론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형법(법학원리)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원리 최종 학위 논문명: 포스트모던적 사유의 법학적 수용 -법사회사와 법문학의 영역을 중심으로
	<b>오승희</b> (전산통계학과) 조교수-생물통계학 △학사: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생물통계 △박사: University of Pittsburgh Biostatistics Genetics 최종 학위 논문명: Effects of Missing Value Imputation on Down-Stream Analyses in Microarray Data
	<b>최수영</b> (간호학과) 조교수-기본간호학 △학사: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최종 학위 논문명: 제2형 당뇨병 노인의 자기관리 행위 구조모형

	<b>천지연</b>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식품가공 △학사: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부 영양자원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식품학 △박사: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물공학과 식품생물공학 최종 학위 논문명: Physical Properties of Molecular Inclusion Complexes of Essential Oils with beta-Cyclodextrin and Formation of Multiple-Layered Liposomes by Electrostatic Deposition of Biopolymer
	<b>이정훈</b> (전자공학과) 조교수-컴퓨터통신시스템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공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무선통신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무선통신 최종 학위 논문명: Interference management via opportunistic user selection in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b>홍예주</b> (초등교육과) 조교수-체육학(한국무용) △학사: 상명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체육교육 △박사: 창원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 최종 학위 논문명: 12주간 한국무용 참여와 멜라토닌 투여가 노인 여성의 노화호르몬과 면역물질 및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
	<b>서혜원</b> (물리학과) 조교수-반도체실험물리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물리학과 물리학 △석사: University of Houston 물리학과 물리학 △박사: University of Houston 물리학과 물리학 최종 학위 논문명: Evolution of Structural Perfections in High Tc superconducting Thin Film
	<b>김성운</b> (수학과) 조교수-위상수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최종 학위 논문명: Divergent sequences of function groups



# “영광스러운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 박사 학위

### 법학

**강창보 법학박사**  
장사법상 시한부 매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현 법학박사**  
인공생식의 민법상 쟁점에 관한 법리 연구

**서세길 법학박사**  
한·중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행정학

**김명범 행정학박사**  
정책의 역동성과 진화과정 연구  
-제주해군기지 정책을 중심으로-

**고인중 행정학박사**  
지방정부 재난관리 역량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서영숙 행정학박사**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정철 행정학박사**  
크루즈 모항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한·중·일 주요항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경영학

**황만중 경영학박사**  
항공사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표현성 및 FSC/LCC의 조절 효과

### 관광경영학

**현계담 관광학박사**  
호텔 직원의 핵심가치 인식, 혁신행동,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연구

### 농학

**강영식 농학박사**  
The Environmental Impact of Naturalized Plant Inhabited to Islet near Jeju-Do

### 농업경제학학

**현명택 경제학박사**  
제주지역 농지임대차 시장의 경제적 특성 분석

### 해양생명과학

**송진우 이학박사**  
양어사료 내 비타민 C 대체제로서 감귤착즙박 이용성에 관한 연구

**사나즈 코즈레비 이학박사**  
Nutritional, physiological and immunological studies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and red sea bream (Pagrus major) fed marine protein hydrolysates

**차지훈 이학박사**  
Nutritional and immunological studies of marine fish fed Bacillus spp. Supplemented diets

### 해양시스템공학

**이재일 공학박사**  
파라메트릭 배열 기반 초음파 시스템 개발 및 응용

### 의류학

**홍지은 이학박사**  
바디스원형의 설계 및 착의평가 개선 연구  
-20대와 30대 여성의 체형분석을 기초로-

### 체육학

**김신 체육학박사**  
시간대별 운동프로그램이 비만 초등학생의 대사성질환 위험요인과 BDNF 관련인자에 미치는 영향

**윤상택 체육학박사**  
승마 장애물 비월에서 도약거리와 높이에 따른 기승자세의 운동역학적 분석

### 에너지화학공학

**조진오 공학박사**  
저온 플라즈마-촉매 하이브리드 공정을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CO 동시제거 특성 연구

**트린광형 공학박사**  
Combination of plasma with catalysis and adsorption towards enhancing the decomposi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 의학

**자히드 만주르 의학박사**  
Orientia tsutsugamushi 감염시 숙주방어능에 미치는 UNC93B1 단백질과 톨-유사수용체 13의 역할에 대한 연구

### 교육학

**김창건 교육학박사**  
科學的 探究活動과 멘토제 및 科學教授方法에 대한 初・中學校 學生, 教師의 認識

**고용철 교육학박사**  
자기주도적 과학탐구 활동이 중등학생의 메타인지, 과학의 본성 및 과학자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최영미 교육학박사**  
초등학생의 ‘작은 생물’ 개념 및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STEAM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동물자원과학

**김남영 농학박사**  
제주마 모색 분포 특성과 얼룩기 모색의 분자유전학적 연구

## 석사 학위

###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단

영어영문학과  
박은선 장미순 현희순

사학과  
강봉석 송민경 전은자 강은정 변성훈

독일학과  
안소향

행정학과  
진유경 강권오

언론홍보학과  
김용국

경영학과  
이녕 양성목 라정임

관광개발학과  
황려

무역학과  
라행

농학과  
현동희 권순화

원예학과  
헤라쓰 무디안셀 라지 지라파 오스틴

생명공학과  
안철수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로빈 구에바라 팜플로나레니엘 수마구이

동물생명공학과  
고미정

지구해양공학과  
안소정

해양생명과학과  
김준성 김희주 이성도 노스워시 로날드 조지

환경공학과  
고태웅 허륜웅

해양시스템공학과  
라기철 현중우

화학과  
양수경 양승혁

식품영양학과  
조봄미 김청이

전산통계학과  
강대전 송다영 김경원

의류학과  
송수민

체육학과  
전준범

식품공학과  
문애경 김재원

컴퓨터공학과  
왕건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기계공학전공  
김기봉 여호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에너지화학공학전공  
이바로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전기공학전공  
레탄등

의학과  
김상희 김지영 문제철 임영협

수의학과  
박창남 임설화 양정진 한경웅

음악학과  
김보람

풍력공학부 풍력기계시스템전공  
강동범 주범철 김다희

풍력공학부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고승윤 이도현

해양기상학협동과정  
오유정

동물자원과학과  
김종철

###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박소형 김영호 양정규

한중과  
강진아 백현진 김미경

###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박은정 오영옥 김향란 김설령 김경주 강영미 박경선

상담심리전공  
윤영식 오승희 양정은 김정옥 김영례 손영수  
현지현 이채영 이미정 이연옥 이영찬 이화  
최옥화 하은희 허희숙 엄영아

국어교육전공  
박민경 허준영 박향아

영어교육전공  
김경미 강승훈 이영렬

지리교육전공  
박샘

수학교육전공  
강은정 권주희 안익찬 양은정

생물교육전공  
박선미 김가람 박수곤

영양교육전공  
최희선 오미연 강은정 박은아 오지현 정민정  
한아름 홍인선

체육교육전공  
김진우 정상수 남희광 김병길 광도규 이영주  
김선옥 김경오 김천권 양영호

미술교육전공  
이문정 전수현 양호주 부지혜 강지현 문정원

음악교육전공  
최재광 허정실 장수초 김민정 강내하 부지연  
곽정연 강정미

초등국어교육전공  
장혜순 문희정 임은진

초등과학교육전공  
문승환 고은혁 김지훈

초등음악교육전공  
양수영 박나은 한유진 송명아

초등미술교육전공  
김기영 한주연 허영순 김경숙 고상아 진영지  
고주연

초등실과교육전공  
이영찬

초등영어교육전공  
오인생 강순여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김진우

### 경영대학원

인사관리전공  
정은경 한봉금 김민호 김기홍 강승연 홍태욱

마케팅관리전공  
오창일 고형주 김주환 부창학 양윤철 양철호

회계학전공  
김영준 강진노

관광경영학전공  
장원석

부동산경제학전공  
강태원 이상중 이우준

경영정보학전공  
김성준 김우진 최영남

관광개발학전공  
김윤자

###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김진숙 현상국 강태영 현종협 고권진

사회복지전공  
이희옥 문성화 이영부 변종호 강동호 한혜숙  
김태한 강영애 이영호

법학과  
임세훈

정치외교학과  
양금희

### 산업대학원

전기공학과  
송경수 좌길훈 김희권

토목공학과  
고영남 강민범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신장섭

산업디자인학과 공예디자인전공  
부혜선

풍력공학과  
이준원 이흥기 부호준 김영태 오대성

말산업학과  
양창인 김미라 정영화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홍승중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강상찬

###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이재숙 림화

심리치료학과  
문은영 김순희 최정에 현수미 우승희

## 학사 학위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하은 고명열 진웅구 유옥곤 당단단 황소진

영어영문학과  
신윤주 배지선 양용준 강세진 강수정 강희정  
김지연 박인혜 현재희 양진영

독일학과  
고은호 김가현 박현근 양소는 김은필 김미현  
오영은

일어일본학과  
정재철 홍성석 이현미 고희경 한민정 고유라  
김은균 김주리 박승우 고은정 오지향 유설미  
강희진

중어중문학과  
박화영 조은재 양혜선 김다영 김지현 김희조  
문슬기 박지윤 서이랑 홍단비 이소이최아람

사학과  
김철석 장원준 김선강 부경남 오수현 양지은  
박상우 양은지 부미정 최예지

철학과  
양은택 김미나 오충용 전하정

### 법정대학

법학부 법전공  
김동남 박준석 고지훈 고희진 고혁진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이지은 주성은 강현지 송명철 강석우 강지운  
김유나 유화경

정치외교학과  
정이랑 김한수 이호철 김석환 명지용 한승제  
만드어용게를 왕기교

언론홍보학과  
임익신 조지혜 문준영 이유라 고주연 염호석  
양지원 한지연 한지혜 김경은 강인영 조아영  
차연정 양선희 부해봉 손량 왕월 왕정정  
유흔 장정요 풍시 현수은

행정학과(야)  
김나현 김민영

### 경상대학

경영학과  
현재원 김무홍 김동철 양유진 강형민 부민식  
신승훈 양보원 임재완 윤규섭 고정우 김경남  
고재용 조민철 정임용 오승훈 양진석 김은주  
김지희 홍유정 홍하정 김정현 박하정 홍준현  
유남남 안다영 강옥봉 등치환 이정유 황철부

관광경영학과  
전한나 김윤주 박동훈 한수윤 강은숙 윤영실  
강진선 고은혜 문미옥 박지훈 고도영 고은하  
김경선 김성실 김하나 변미선 양희숙 문아람  
최하경 홍연정 한지희 두숙영 마령 장조하

회계학과  
이종률 양혁준 강지훈 박지만 강민주 김민건  
이정훈 이예현 이지은 문수혁 김민정 송정아  
홍영남 이한솔 강지안 김성미 김소현 김은별  
박해나 변현진 강주리 김명용

무역학과  
고민정 양동선 김경태 정승윤 김동훈 안유미  
김소현 손연희 오승미 임소희 라천야 마효민  
왕흠흠 팽령

경제학과  
양건철 이민혁 김은식 문지환 송우람 좌무진  
김동유 부경남 김용아 지상준 고호 김민지  
문종석 김우철 김다정 이슬 최나열 장려  
양서희 진준순

관광개발학과  
박재연 홍승민 지현우 김지연 이창용 문춘석  
손명성 강지에 박민지 현소라

경영정보학과  
강봉현 허승지 고명환 이태협 강봉균 강지은  
오하정 김지후 박선주 김수현 팽사 이호  
조주쌍 주선

경영학과(야)  
김나경 강승훈 홍원구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최진 오정수 고민지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김민주 고재균 한승효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강지은 이유림

영어교육과  
홍성훈 진민희 강미니 문지현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강경훈 허영진 최민관 오유진 김미래 명소리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강빈 안세현 권보선 임형빈

윤리교육과  
고지수 김정원

컴퓨터교육과  
양문보 김영지 김정연

###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부 식물자원환경전공  
강선미

생물산업부 원예환경전공  
배성준 한재혁 윤성준 김나영 김지연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전공  
김영완 이슬비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강태철 손호현 김배범 박윤귀 김수민 강희주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양정환

산업응용경제학과  
고동환 문신철 고대영 유경무 고영준 고동찬  
윤충준 서선미

### 해양과학대학

해양의생명과학부 해양생명과학전공  
김병욱 문성태 안혜준

해양의생명과학부 수산생명과학전공  
김민철 조상호 김수환 강문호 유슬기 강희경  
김종규

해양산업경찰학과  
김형민 조지훈



#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담는 시를 쓰고 싶어요

아라 초대석 <16> 장한라 시인

‘올림 있는 혈자리마다 요망지게 채워지 쿠다.’ 어느덧 누구보다 더 제주인스럽게 제주어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 긴긴 인생의 길을 돌아, 늦은 나이에 다시 펜을 쥐고 새로 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인 장한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돌고 돌아 시인의 길에 서다  
“고등학교 때 문예반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편집장으로 있었어요. 아무래도 글을 쓸 기회가 많아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기장 형식으로 글을 쓰다가 이후엔 저만의 이미지를 담아내게 됐고 이것이 시의 형태로 굳어지게 됐어요. 처음부터 시인이라는 꿈을 꿔다가 보단 자꾸 글을 쓰다 보니 그게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우연과 필연의 정교한 짜임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서도 꾸준히 펜을 놓지 않고 ‘가고 싶은 시집, 사고 싶은 시집’이란 부제 아래 시를 써내려 갔다는 그녀. 당시 그녀가 영문학과를 진학 이유도 영문과에 가면 시를 더 잘 쓴다는 풍문에 이끌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돌연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녀가 써왔던 전부를 잃어버리며 상실감에 허탈한 상태에 빠졌고 시의 변두리에서 머뭇대며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한다.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어린이집, 다문화가정교육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에서 오는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도시를 떠나 지리산 자락 함양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마주한 숲에서 다시금 시인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한다.  
“삶의 흐름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되짚어보게 됐어요.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시에 대한 열정을 찾게 됐고 그렇게 40대에 다시 잊고 있었던 시인의 꿈을 키우게 됐어요.”



제주와 말을 사랑하는 ‘즐거운 선택’ 시집의 저자 장한라 시인.

◇제주로의 ‘즐거운 선택’  
함양에서 시인의 꿈을 키워가던 그녀. 8여년 간의 함양 생활은 또 다시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게 했다. 문득 ‘이곳에서 나의 충분히 나의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그녀. 제주에 오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3년간 올레길을 걷고 나서 돌아보니 제주공항에서 발을 떼기 힘들어 제주에 계속 머물 여지를 찾았다고 한다. 숙명여대 대학원을 재학 중이던 그녀는 돌연 제주대 대학원으로 등지를 옮기면서 제주 도민 라이프가 시작됐다.  
“2010년에 등단해 이번엔 처음으로 발간한 시집의 제목이 ‘즐거운 선택’ 이에요. 함양에서의 생활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또 다른 삶의 시작, 이 모든 것이 선택이었고 그동안의 삶을 담아내면서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제가 제주를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다는 것에 말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시  
대부분 서정적 분위기의 시와 사회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그녀. 제

주대 도서관을 자주 찾는 편인데 음악을 들으며 ‘광수생각’ 등 글이 없는 책을 보며 모티브를 얻는다고 한다. 때론 자전거를 타고 목적 없이 떠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만남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글귀가 떠오를 때가 많다고 한다.  
“모든 시인들의 고민이겠지만 첫 문장을 써내려가 갈 때가 가장 어려워요. 잡다한 생각 속에서 정말 필요한 언어, 군더더기를 모두 없앤 보석 같은 언어만을 처음 써내려가야만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첫 문장만 풀리면 모두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메모지를 가까이 한다는 그녀. 긴 문장을 쓰기 보단 짧은 단어를 이미지화하고 글을 쓰고 나서 여러 번 보고 고친다고 한다. 실제로도 원고 청탁을 받아 원고를 보내놓고 다시 최종본을 고쳐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 등 섬표, 마침표 이런 사소한 것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그녀의 시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시를 쓰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른 시집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시를 읽어보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게 시를 쓰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주위에 보이는 것들의 형상만을 묘사, 관념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시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주, 말과 사람의 시를 쓰고싶어요  
시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시는 인류가 가진 모국어”라고 고백한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와 마찬가지로 시 치료가 있는데 사람의 곁이 아닌 내부를,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을 치료한다고 얘기한다.  
“소설가들도 자신의 소설을 쓰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시집을 꺼내서 시 몇 편을 읽고 실마리를 얻듯이 시는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감성을 일깨우

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다고 느낄 때 시 한편이 우리의 심신을 위로하는 것처럼 말예요.”  
그런 그녀에게 모든 사람이 시인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가슴에 품은 것을 글로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그녀에게 있어 시인이란 늘 언어를 품고 마음속 무엇인가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제주대 대학원과 함께 문화 대학을 재학 중인 그녀가 바라보는 목표는 무엇일까.  
“제주어를 비롯한 제주의 다양한 풍속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 제주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제가 담고 있는 제주, 말과 사람에 관련된 시를 계속해서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어를 잘 알릴 수 있는 시를 선보이고 싶어요.”  
‘시인은 만들어지거나 발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발견되는 존재, 다시 말해 원래 있는 존재’라는 말처럼 그녀의 삶 또한 그런 길을 위한 삶이었지 않았을까 싶다.

부찬우 기자

바라만 봐도 시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다는 것 바라만 봐도

사람을 살리는 것들은 시웃 안에 다 들어있지

산 새 숲 숨 산소 수소 샘물 상설시장  
심자가 성당 사(寺)  
삶 속엔 믿음 소망 사랑이  
식물처럼 자라고 있지

사람이 선하게 사는 세상에서  
바라만 봐도  
시웃은.

장한라 시인의 <즐거운 선택> 중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동문칼럼



강경민  
행정학과 82학번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학4학년 때 입사원서를 쓸 때 인생의 좌우명을 쓰라는 칸이 있었다. 한동안 고민했다. 내가 대학 4학년을 다니면서 인생의 좌우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고민했다. 내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이었든가? 그레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인생좌우명-내 인생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헌법-인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비슷한 말이다. 사람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노력하여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좌우명을 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을 되새기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었다. 살다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 아침에 오르막길에 오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을 보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어둠이 짙게 깔리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발을 잘못 디디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나도 그랬다. 늘 걸어왔던 길이라 무턱대고 디딘 발이 수렁일 줄은 몰랐다. 많은 상처도 입었다. 주위에서는 잘나가는 사람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소식도 들렸다.  
2007년 초, 1999년에 입학하여 다니던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전학을 왔다. 석사학위 논문제출 기간인 5년이 이번학기가 마지막이라던. 그레 이제 시작이다. 어차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

〈4면에서 계속〉	
지구해양학과 김승학 김도형 김경보 강혜인 김우정 이주연 임수현	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김형석 손건영 이원택 염소천 김정수
환경공학과 양진욱 이기준 최유민 조기훈 조현희 임지수	전산통계학과 양영식 고재영 강복심
토목공학과 김대진 박태진 이현도 송병호	식품생명공학과 강유미
해양시스템공학과 김진욱 윤영지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박현우 부창훈 홍광표 고희진 김영호 이동한 김희재
해양산업경찰학과 오홍규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강동훈 고병수 김성진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김은수	통신공학과 박정준 오민선 임용 박용담 송승률 김효정 강문관
생물학과 윤지현 이경태 김지혜 송현경	에너지공학과 강정현 진영득 김정원 심수창 최지원 현수연
화학과 조진성 김미진	컴퓨터공학과 부경환 조성범 김성주 이기진 이상준 이진형 현광민 김동연 김용대 항희
식품영양학과 박지혜	전자공학과 홍종현 임수영 황지연 김위 송원선
수학과 오승민 홍성중 김경진 김지민	전기공학과 이동훈 송승언 최한수 허수철 문경란 김영천 고석범 박성한 강병규 고재우 강수진 김도경 박성필 김민철 주선광
전산통계학과 고재훈 강재면 김기현 고예은 함나람	생명화학공학과 임세미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오지원 이진리 현동희 이규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김봉현 김현상 강유현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거·가족복지전공 고두현 김현정 김지희 이지희 김유정 강나영 오희주 하인아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양혁준 이관우 김유미 양수진 정리위안 소택동
의류학과 성재모 김수영 김혜림 최혜선 김아림 하은진 문성중 임수연 체육학부 체육과학전공 고길림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김규정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박진서 이시승 이하늘 정민혜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김대권 이나현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김승배 박길주 김산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강은혜

음악학부 성악전공  
김창완

미술학부 조소전공  
정다혜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이지연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변상이

박사 25명  
석사 229명  
학사 451명      총 70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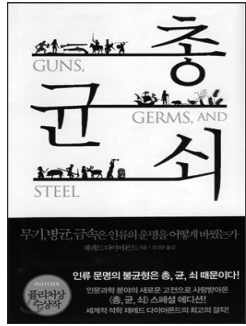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안내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8월 25일 (화) 11:00  
□ 장 소 : 국제언어문화센터 아라뮤즈홀

2. 학위증서(졸업증서)수여  
학사학위증서(졸업증서)는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학과장이 수여합니다.

>> 권하고 싶은 책

## 〈총, 균, 쇠〉: 왜 유라시아가 세계를 지배했는가?



총, 균, 쇠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요즘 한국에서도 학문의 융·복합, 혹은 통섭이 화두가 되고 있다.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도 ‘융합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실제로 고등학교 생용 ‘융합과목’을 만들고 있다. 문제는 융합 또는 통섭에 대한 논의는 부분한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찍이 이들 개념을 한국에 소개하고 논의를 주도해온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그 의미를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통합(統合)은 둘 이상을 하나로 모아 다스리라는 뜻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과정이며, 융합(融合)은 둘 이상이 녹아서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학적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럼 통섭은? 통섭(統攝)은 원래 구성성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성을 잘 섞어 새로운 실체를 탄생시키는 것, 곧 생물학적 합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념 정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논의가 모두 학문의 경계를 넘어 진리의 참 모습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좁은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학문통섭의 사례를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성과 중 하나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들 수 있다. 최종 빙하기 이후 지난 1만년 동안 왜 인류 문명의 발전은 각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는가? 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서 먼저 문명이 발달하고, 이 지역의 민족들이 여타 대륙을 지배해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 현재 UCLA 지리학과 교

수로 재직 중인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총, 균, 쇠〉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답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발전시켜 남보다 먼저 정치 경제적 힘을 얻은 반면, 어떤 민족들은 끝까지 그러한 힘의 요소들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왜 발생했는가? 그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적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다이아몬드의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선사 시대부터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에 유리한 지역, 곧 유라시아 대륙에 살게 된 ‘우연’이 오늘날 세계 문명의 우열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라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이며, 따라서 처음부터 가장 많은 야생동물의 종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가축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유라시아 대륙이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길들이고 이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다른



손명철 지리교육전공 교수

대륙들은 대개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반해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 방향을 축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지역에서 길들여진 동식물 종이 유사한 위도 상에서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까지도 쉽게 퍼져나갈 수 있지만, 위도에 큰 차이가 나면 기후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산이 어렵다. 따라서 저자는 만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단의 원주민과 유라시아의 민족들이 선사시대 때부터 거주 지역이 바뀌었다면 오늘날의 문명화 양태는 정반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1997년 풀리처상을 수상하였으며 문명의 불평등 기원을 다룬 획기적인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수년 동안 대학생이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문명의 불평등 원인을 생물지리학, 생태학, 유전학, 병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광범하게 규명하고 있어 학문 융복합, 혹은 통섭의 훌륭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학문의 경계를 벗어나 진리의 참 모습에 보다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학적 수준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가진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학부생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이 지닌 중요한 미덕 중 하나라 하겠다.



» 칠성통 문화의 거리 기획

## 텅 빈 거리,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문화의 거리를 뒤덮은 암울한 회색빛만

사람들 외면 속에 쓸쓸한 칠성통...

맛있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우리 학생들은 어디를 찾을까. 대학생은 물론 상당수 청소년들이 제주 일도동에 위치한 '칠성통'을 방문하고 있다. 젊은 청춘들에게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 상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제주의 이색적인 맛을 체험할 수 있는 맛집들이 건재하다. 근처에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까지 방문한 동문시장이 있어 제주 전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충무로 못지않게 영화 속 테마가 잘 스며들어있어 낭만을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다. 그러나 누군가 칠성통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것일까. 현재 포크레인과 많은 인부들이 시멘트와 뿌연 먼지로 칠성통을 덮고 있다. 영문도 모른채 파괴당하는 칠성통을 기자가 밀착 취재하기로 결심했다.

〈편집자주〉

◇지중화 공사란 무엇인가

“똑딱 똑딱”. 지하도에서 올라온 뒤 칠성통 입구에 진입하기 전 들리는 소리다. 입구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구두 브랜드 ‘금강제화’ 대신 포크레인이 연신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반긴다. 커다란 팻말이 서있다. 가까이 다가가 내용을 읽어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중화 사업’에 관해 적혀 있었다. 반복해서 글을 정독했으나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공사 현장을 카메라 셔터로 몇 차례 누른 뒤 근처 커피숍에서 제주시청 건설과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5분 내소로 짧았으나 꽤 저렴한 금액은 모두 해소됐다.

우선, 지중화 사업은 쉽게 말해서 지상에 있는 전선들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다. 또한 바닥 포장 공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도청의 큰 야망도 들을 수 있었다. 건설과 소속 박종영씨는 “제주의 본 상징가인 칠성통이 최근 들어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분위기 반전과 고객 유치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그럴듯한 논리에 통화 도중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커피숍 창가에서 보이는 파격적인 공사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석막한 제주도 대표 쇼핑거리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확실히 칠성통의 원질한 외모를 망치고 있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폭 좁게 위치한 시멘

트산과 벽돌성은 칠성통을 회색빛으로 물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도로를 파헤쳐져 있어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큰 방해가 됐다. 무한한 서비스를 지원해 고객을 유치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니 마음이 답답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인부들은 잦은 휴식을 취했고 대부분이 담배를 태워 온 거리가 흡연구역 같았다.

거리 안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자마자 입구에서 그나마 양반이라는 것을 느꼈다. 패션 브랜드 빈폴 앞 사거리의 싱크홀이 뚫린 마냥 큰 구멍이 있었다. 안전바로 막아놨지만 울퉁불퉁한 도로는 사람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진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았다. 상상만 했는데 아찔했다. 카메라를 들고 수첩에 열심히 메모를 하다 보니 어느 관광객 무리가 말을 걸어 왔다. 대학생 기자임을 밝히고 그들의 말에 집중했다. 울산에서 온 이들은 제주도가 좋아 매년 휴가철마다 방문한다고 말했다. 특히 탐돔 바다가 너무 좋다보니 항상 칠성통을 경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칠성통으로 바로 오지 않고 탐돔에 들린 뒤 거리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을 흥미롭게 경청하다가 깜짝 놀랐다.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다. 이들은 제주에 오기 전, SNS를 통해 칠성통이 공사하는 현장을 먼저 봤다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네티즌들의 칠성통을 향한 비아냥거림에 자신도 모르게 꺼졌다는 말을 꺼냈다. 충격적이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가 오히려 관광객들을 칠성통 밖으로 내쫓고 있는 실정이었다. 생각해보니 취재를 시작하면서 약 2 시간동안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관광객들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내가 관광객의 입장이었어도 시멘트와 온갖 벽돌로 무장된 공사 현장을 기념사진에 담진 않았을 것이다. 쓸쓸한 대화를 나눈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무거움 마음을 누르고 다시 카메라를 들고 칠성통 곳곳을 찍기 시작했다.

◇상인들 불만 극에 달하다

갑자기 칠성통 안으로 경찰차 한 대가 진입했다. ‘차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공권력의 대표가 몸소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일반적인 대화보다 인성을 높게 이어가고 있는 무리들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사태는 보기보다 심각했다. 주먹다짐이 일어날 듯 서로가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경찰들은 이를 중재하느라 진을 뻗었다. 주변 횡집에서 구경하는 어르신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사건은 공사를 진행하는 관리자와 상인의 갈등으로 발생했다. 상인은 가게 앞 도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헤쳐져 있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리자는 자신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며 피해가 지속되는 점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서로간의 입장이 있어 잘못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마음이 무거웠다. 몇 번이고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으나 상인의 진심어린 목소리는 칠성통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도는 무슨 방법을 강구했는지 궁금했다. 처음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필요한 정보를 찾지는 못했다. 수소문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원화통’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메뉴가 눈에 띄었다. 게시판에 녹아있는 도민들의 눈은 소리는 꽤 심각했다. 지중화 사업에 관해 글을 남긴 도민들은 대부분 상인이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공사 때문에 매출에 급격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가운데, 어떤 도민은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와 메르스 등 악재들이 겹쳐 살아남기 매우 힘들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 유물들이 발견돼 지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옛 집터, 우물터 등이 나타났다는 주장이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상업 활동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몇몇 도민은 도로 바닥 포장 공사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바닥 포장공사가 숙련된 수준의 기술로 시공돼가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바닥재 사이의 간격과 시설물들의 모양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봐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계속해서 칠성통의 상인들이 점검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형식적이었다. 사업비 약 43억원을 투입해 시행되는 공사가 물거품이 될뿐만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이었다.

◇죽어가는 테마거리, 먼저 해결해야할 점 그렇다면 공사로 인한 상업 활동, 보행자 이동 방해 등 외부적인 문제만 칠성통 거리에 자리 잡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정답은 ‘No’



사람들의 발길 없는 텅 빈 거리와 행하기만 한 상가. 흉물스러운 공사 자재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위). 사람들의 통행로를 틀어 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과 공사 자재로 인해 불편을 호소 하는 관광객들(아래).



다. 거리 안쪽으로 오래 걸다 보면 영화 작품들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벽과 바닥에 붙어 있다. 그러나 주변은 회색빛의 컨테이너 벽이 거리를 둘러 싸고 있었고 패자가 된 상가들도 보였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포스터도 걸려 있었다. 몇몇 가로등은 불빛이 약하거나 고장이 나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불법주차문제도 심각했다. 골목 한가운데를 막는 자동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이동에 큰 방해가 됐다. 테마 거리 근처의 상권들은 유동인구가 적어 상업 활동이 어려운 데, 불법 주차 때문에 그 피해가 더해진 것 같았다. 불현듯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을 보고 막힌 길이라고 생각해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충무로처럼 영화와 함께하는 테마의 거리로 첫 발걸음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담한 결과를 눈 앞에서 목격하니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졌다.

평소 칠성통에 자주 온다. 2013년 2월, 학생 신분으로 제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방문

했던 최초 관광지로서 애착이 간다. 혼자 동문시장에서 전통음식을 먹고 사고 싶은 옷, 신발들을 마음속에서만 구매했다는 기분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렇게 내게 있어 특별한 거리가 공사로 인해 훼손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편으론 나도 이렇게 심란한데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은 어떤 심정일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지중화 사업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 도청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름다움을 조성한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면 관광 홍보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까지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상인들이 인내심을 가져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 또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청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변 상인들에게 합당한 정책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차 없는 거리’가 ‘상점 없는 거리’로 변질될 수 있다.

글/사진=백승규 기자

» 소설 속으로의 여행 -〈윤대녕 저〉,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의 사람 발자국 유적지

## 상처 입은 자아, 치유의 바다를 향해...

독서의 계절이 어디 따로 있을까? 그곳에 책이 있고 당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방학동안 여행은커녕 책 한 권도 읽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준비했다.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펄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 기획.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한동안 책을 놓아두었던 손에 다시 책을 쥐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순간, 이미 책상 앞에 아닌 소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을까? 상처 입은 자아를 치유해나가는 영빈의 제주도 생활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눈이 시리도록 푸른 제주의 바다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을 걸으며 소설 속 영빈처럼 제주의 바닷바람을 느끼고 싶다면 자, 이제 같이 읽자. 여행이 시작된다.

〈편집자주〉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줄거리

소설가 영빈, 동화 일러스트 작가 해연, 재일 한국인 히데코. 이 세 사람의 미묘하고 위태로운 관계를 그들의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 취재차 제주도를 방문한 영빈은 사람 발자국 화석 산지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되고 제주도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제주에서 그는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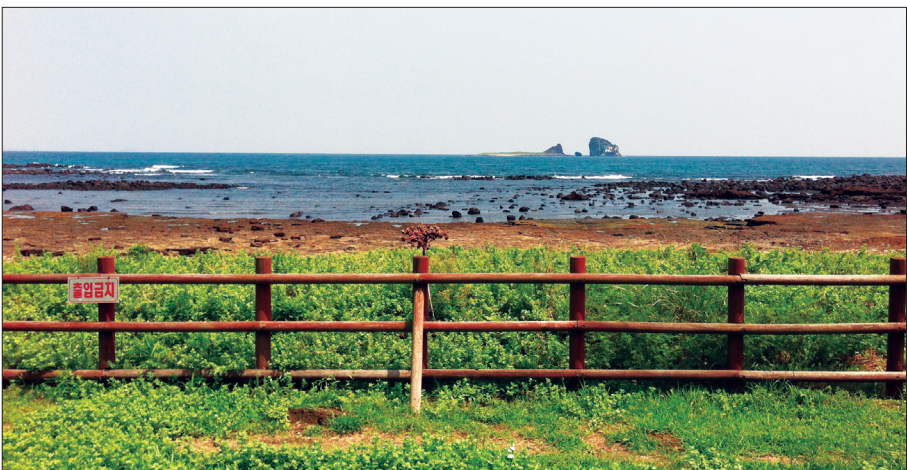
◇사계리 해안도로 - 사람 발자국 화석 산지

# 화석이 발견된 곳은 산방산과 송악산 중간에 해안도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그 앞에 통나무로 굽조한 ‘사람 발자국 화석 관리사무소’가 세워져 있었다. - 책 내용 중 p.69

8월 17일 따가운 8월의 햇빛에 살갗이 타들어갈 듯한 정오, 뜨거운 날씨 속에 산방산으로 가는 750번 버스를 탔다. 사람발자국 화석이 산방산과 송악산 사이 해안가에 있다는 단서만 들고 무작정 산방산행 버스에 올랐다. 1시 반이 되어갈 무렵 산방산의 거대한 모습이 버스 창문에 가득 찼다. 그 거대함에 눈이 빼앗겨 버스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한참을 산방산만 바라보았다. 어느덧 정산을 차려보니 버스는 사계리를 이미 지난 후였다. 도저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고 버스의 도착시간도 알 수 없어 결국 택시를 타고 사람발자국 화석 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택시 기사님께서 가는 도중 거기는 뭐하러 가냐고 물어보셨다.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답사하러 간다고 얼버무렸다. 택시기사님은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어보이셨다.

곧 통나무로 지어놓은 관리사무소가 눈에 들어왔다. 굵조된 듯한 통나무집. 관리소 문을 두드리니 한 남자가 나왔다. 사람 발자국 화석을 보러 왔더니 옆에 있는 통나무집으로 안내했다. 통나무집에는 화석 복제본

이 전시되어 있었다. 남자가 “이건 사람발자국 화석을 본떠서 만든 복제본이구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긴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택시 아저씨의 그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다. 상황을 보니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듯 했다. “구경 더 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관리인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갔다. ‘아시아 최초 사람 발자국 화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시관이라는 곳은 초라하고 허술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도 명색히 문화재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고 안타까웠다. 사진을 몇 장 찍고 밖으로 나갔



소설 속 영빈이 남겼던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있는 울타리 너머 사람 발자국 화석, 바다, 형제섬이 보인다.

다. 화석은 통나무 집 맞은편에 있었다.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다.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 영빈은 미리 준비한 편지를 들고 접근금지 라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순간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영빈의 온몸을 휘감았다. (중략)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든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휩싸여, 그것은 마치 하늘의 계사처럼 영빈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 책 내용 중 p.70

영빈은 발자국 화석을 밟으며 어떤 전율을 느꼈다. 그때 그 전율이 영빈을 제주로 내려오게 이끌었다. 울타리 너머 발자국 화석이 보였다. 차마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으로 한참 서성었다.

# 해연은 접근금지 표지판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 책 내용 중 p.328



발자국 화석 산지 옆 사계리 해안가에 산방산이 보인다. 영빈이 처음 낚시를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소설에서 해연이 그랬던 것처럼 출입금지 표지판 너머를 바라보았다. 형제섬이 보였다. 사람 발자국 화석, 바다, 형제섬. 그 미묘한 어울림. 영빈, 해연, 히데코. 그들의 미묘한 관계를 보는 듯 했다. 화석 산지에서 인생을 돌아본 영빈, 바다 제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해연,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고독한 섬 같은 히데코. 발자국 화석과 바다 그리고 그 위의 섬까지 마치 이 세 사람을 한 폭의 풍경 속에 담아놓은 듯 했다.

◇바다, 치유의 공간

# 영빈: “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바다가 그 일을 해주고 있거든” - 책 내용 중 p.330

“호랑이는 상처 입고 몸부림치는 자기 환경에 불과하니까” - 책 내용 중 p.332

영빈의 눈에 보이는 호랑이의 정체는 상처 입은 자아였다. 이 소설에서 바다는 단순

한 공간적 배경을 넘어 치유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빈은 제주의 바다에서 그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다.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질 때가 있다. 그건 아마도 그 깊이와 끝을 돌아본 영빈, 바다 제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해연,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넓고 깊은 바다에 다 펼쳐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소설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번 여름, 바다는커녕 책 한 권조차 읽지 않은 것은 사실은 나였다는 것을 자각했다. 아직도 형제섬이 떠 있던 사계리 바닷가가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빈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나 보다. 바다는 어쩌면 사람들의 고민을 다 들어주는라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이 아닐까. 지금 수많은 고민들로 머리가 복잡한 그대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여름이 가기 전에 어서 바다로 떠나라고. 김정희 수습기자



교수시론



임 동 춘  
중어중문학과 교수

“

희망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노력없는

한날 백일몽일뿐...

”

기자수첩



김 정 혜  
수습기자

“

갑질 논란 속

알바생에 대한

배려와 격려가

그들에게 힘이 된다

”

희망(希望) 그리고 백일몽(白日夢)

젊은이는 미래에 무엇인가 되어야 할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들에게 장래의 희망에 대해 묻곤한다. 나도 가끔 학생 상담에 임하면서 학생의 장래 희망을 묻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희망을 듣고 난 뒤, 나는 다시 묻는다. “그러면 너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묵묵부답이나 머리를 긁적 거림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한 학생이 상담 중에 자기는 올해 내로 HSK7급 이상을 따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올해 구체적인 연세 시험이 있는지, 시험 장소는 어딘지, 1차시험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묻고 대답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다. 학생들이 말한 이런 종류의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 허망한白日夢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운동장에서 높이뛰기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운동능력과 상관없이 높이 뛰어오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 골포스트를 잡기 위해 뛰어 오른다면

훨씬 높이 뛰어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 ‘형언도필첩서’에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최충국은 나라를 통틀어 글씨를 잘 쓰는 자였다. 일찍이 과거에 나아가 답안을 쓰다 한 글자를 얻었는데, 황희지의 글씨와 비슷하였다. 앉아서 종일 살펴보다가 차마 버릴 수 없어 답안지를 품고 집에 돌아와 버렸으니, 이는 마음 속에 득실을 두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이징은 어린 시절 무대에 올라 그림을 연습하고 있었다. 집에서 그가 있는 곳을 몰라 삼일이 지나서야 찾았는데, 그 부친이 노하여 매질을 하니 울면서도 그 눈물로 새를 그렸자 한다. 이는 그림에서 영육을 잊었다고 이를 만하다. 최산수는 노래를 잘하는 자였다. 산속으로 들어가 때론 한 가락을 마치면 노래를 주워 나막신에 넣어, 그 모래가 나막신에 가득 차야만 돌아왔다. 일찍이 도적을 만나 그를 죽이려 하니, 바람에 의지해 노래를 불렀더니, 도적들이 감격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한다. 이는 생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연암 선생은 이 글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정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걸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순간 그 道를 깨달았다면 그날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 했을까? 희망이란 이런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지, 심지어 목숨조차도 걸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방안에 대해 생각중이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白日夢을 꾸고 있을 따름이다.

희망의 완성은 목표 설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고했어, 오늘도

지다. 여섯 시간 동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진이 빠지게 일을 하고 마감 몇 분전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술에 취한 손님이 비틀거리며 매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옆에서 함께 일하는 알바생의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손님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더라도 음의 신분인 알바생은 갑질을 일삼는 진상 손님들의 기분을 맞춰줄 수 밖에 없다. 이른바 갑정노동인 셈이다. 갑과 을로 나뉘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알바생의 감정은 그저 제품에 딸려나온 상품에 불과할 뿐이다. 갑의 기분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파는 을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서글픈 현실이다.

‘청년유니온’이 전국 15~29세 서비스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기분과 상관없이 항상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하면서) 감정노동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가 79%로 많은 응답자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을 마치

물건을 팔고 계산을 하는 기계인 것처럼 대하는 듯하다. 어쩌서 한 쪽만 상대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사람을 대하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왜 알바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것인지 이에 분개하는 바이다.

지난 3월 알바천국에서 가장 기분 좋은 손님의 말을 조사한 결과,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2%가 ‘인사에 대답’해주는 손님의 말이 가장 기분이 좋다고 답했다. 이어 나를 기억해주는 말이 18%, 칭찬의 말이 11%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손님의 말을 들었을 때 팔뚝의 통증과 발에 붙은 명들이 다 사라진 듯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것을 느낀다. 다른 큰 무언가를 바라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수고하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알바생에 대한 배려와 격려의 인사가 알바생에게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사설

내 삶의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학위를 받고 졸업을 앞둔 계절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하여 바다와 같은 사회로 떠나는 학생들이 저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명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주길 기대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시작이 순조롭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괜찮다. 지금까지처럼 살아온 기적이 다시 살아갈 기적이 되어 줄 테니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고 꾸준히 해나가면 잘 될 것이다. 과정 중에 곳곳에 숨겨진 작은 기쁨들을 누리며 더디더라도 즐겁게 가라”라고 격려해 주고 싶다.

졸업은 또 하나의 이별이며, 졸업하는 이들은 지금까지의 공동체(학과, 학교)를 떠나게 된다. 떠나는 이들은 지금까지 함께 한 이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장든 선·후배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 일련의 행동들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감사, 그들과 함께 지어져 왔던 나의 삶의 일부에 대한 인정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하고 삶을 한결 여유롭게 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결정들은 나와 그 대상의 관계를 지배하게 된다. 타인과 사회는 언제나 실망스러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흔히 우리는 내게 무엇이 이익이었나를 되짚어 보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불편한 마음과 불평이 아름다움과 선함의

가냘픈 싹을 짓밟을 수도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주어진 고마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능선과 쾡지, 계곡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며 가야하듯 어려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템포 쉬어가며 가는 기쁨과 생각해도 좋다. 멈춰 서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감사한 것과 기적을 충분히 음미하고, 종종 잊어버리는 인식과 감사의 연관성을 인정할 때 찾아오는 회복과 내면의 힘은 우리를 또 한 번 성장시키게 할 것이다. 인생의 계곡을 지나가는 건강한 태도는 이미 내가 받은 선물들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희망으로 미래를 소망하며 성실한 자세로 내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길이 보일 것이다.

비록, 자신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고깃배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해명웨이의 고깃배처럼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라.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 전체를 알지 못하며,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의 순탄하지 않음은 우리의 결말이 될 수 없고, 내 삶을 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출렁이며 다시 바다를 꿈꾸는 순간이 올 것이다.

대학 교육 이대로 좋은가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다. 수건 따로, 행주 따로, 겹چه 따로, 하지만 불과 이삼십년 전만해도 수건에서 냇으면 행주로, 더 냇으면 겹چه로 사용되다가 닳아서 못쓰게 되면 연탄화덕 불온 마개나 불쏘시개가 되기도 하였다. 요즘은 이렇게 사용하면 이상한 사람 혹은 지저분한 사람이 된다. 그렇다. 옛날엔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지고 그 용도가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보다. 옛날엔 자기 상황에 맞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신의 필요성을 찾아갔다. 그런데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고 학교는 목표를 가져라, 그제 있어야 성공한다. 딱 한 가지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틀 속에 갇혀 자란다. 이 틀은, 이 용도는 대학까지이다. 그러나 이 용도에 맞추어 틀이 완성된 사람은 상위 4%, 즉 수능 1등급들이고, 이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못된 용도로 쓰임을 느낀다. 자신의 용도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행주나 겹چه가 되기 싫어 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책임은 대학에 있다.” 대학교 측면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학과, 계열, 학부 모집, 게다가 복수학위제, 융복합교육과정,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IPP) 등, 학생의 용도는 대학교육으로 결정할 수 없다. 물론 사람의 용도가 처음부터 확실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에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일들을 접안이나 동네에서 실천하면서 그 용도를 찾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잘 못 채워진 첫 단추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지 말고 대학의 자율과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승리와 패배만 존재하는 교육제도의 폐단을 적절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입학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는 교육제도로는 아무리 학교를 바꾸어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뇌.색.남의 시사용어

# Hoax,

불안감 조성하는 가짜메시지...

독자기고

다문화멘토링, 함께 하실래요?



한 미 소  
연문홍보학과 3

혜택 받는 대학생들



김 봉 남  
지구해양학과 3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에 참여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참여 대학생들이 다문화·탈북가정 출신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멘티 학교나 멘티 집에서 학습지도 및 멘토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별히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고, 1년 동안 멘티(배움지기)와 함께 마음을 맞춰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년 4월이나 5월 중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다문화 멘토링 관련 공지가 게시된다. 성적증명서와 교수추천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관 3층 학생복지과에 제출해 합격여부를 기다린 후 학생을 배정받고, 1년 간 활동하는 형식이다.

먼저, 선발이 되면 다문화가정담당강생님과 면담을 진행하고 나서 배정받은 배움지기와 함께 첫만남을 갖게 된다. 어색한 첫만남을 시작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 배움지기가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은 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 지에 대해 간단히 나눈다. 그리고 규칙적인 만남이 이뤄질 계획이므로 배움지기가 가능한 시간과 나눌지기(멘토)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만남을 마무리한다. 본인의 경우 배움

지기가 평일에 학원을 다니다보니 주말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영어위주로 학습을 원해서 영어과목 관련 학습계획을 세웠고, 영화관람같은 문화생활을 자주 하기 힘들기에 한달에 한번 영화관람을 하고 감상문을 쓰는 시간을 계획해서 활동했다. 아직 활동 중반부이기에 어설픈 점도 많고, 교육학과 관련 학생보다는 계획적으로 학습을 학습시키지 못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을 계획만 잘 세운다면 누구보다 알차고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문화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 바로 다문화멘토링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멘토링을 통해 배움지기와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와 사람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휴먼 네트워크를 체험할 기회를 학우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는 2가지 학생들이 있다. 학교의 혜택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두 부류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 학교에서 해주는 건 많은데 꼭 몇몇 친구들만 얻어 가는 것 같아.”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며 안타까워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늘 보던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농담 삼아 하는 말로 학교에 내는 등록금은 전체 학생의 10%만을 위해 쓰인다고 이야기한다. 혜택을 찾아 가는 10%는 학교에 내는 등록금보다 많은 것을 받아간다.

얼마나 혜택을 받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필자의 사례를 들어 보면 교외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1년간 계좌로 입금된 현금만 1000만 원이 조금 넘어 간다. 물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환분도 내지 않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료증도 얻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다. 중요한 건 이런 프로그램을 서울에서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지불해야만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프로그램만 잘 찾아 들어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이 필요하면 장학금을 주는 것을 찾아 진행하면 된다. 우리학교에서 토익점수를 올리거나 해도 장학금을 준다. 과연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학교에서 주는 혜택은 상당하지만 이것을 잘 알고 받아 가는 학생들은 소수라는 점이 안타깝다.

그렇다면 10%에 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행동까지 연결 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신청하라는 것이다. 대학생이 된 순간부터 누군가 입학을 밥을 떠넘겨 주는 경우는 없다. 직접 찾아서 먹어야 한다. 혜택을 얻어 가는 학생들을 보며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과 같이 혜택을 얻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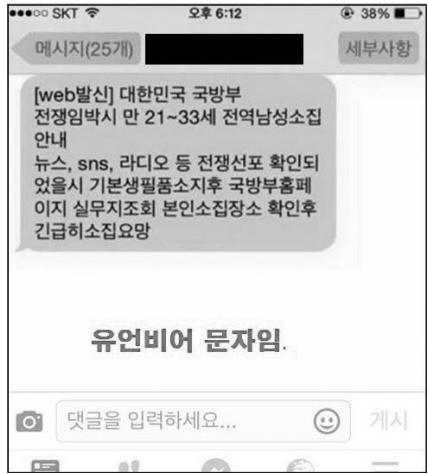
한가지 놓치면 안되는 것은 이렇게 혜택을 받으으며 사는 학생들이 모두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니다. 2가지 분류인데 처음부터 열심히 하던 학생이거나 혹은 하나씩 하다보니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결론을 이야기 하면 우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는 것에 지원해 보라는 것이다. 하나씩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른 스스로를 보게 될 것이다.

퍼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변인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만든다는 점에서 악성코드만큼이나 위험하다.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정보의 파급력이 강해지고 누구나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피해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연달아 발생한 국자적 악재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으로 국민적 동요를 틈타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혹스’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이런 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주변인에 무조건 전파하기 전에 메시지 내용의 출처를 확인거나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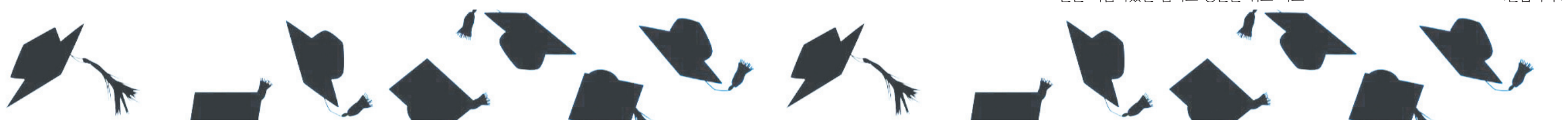
부찬우 기자



북한군이 대남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일, SNS 상에서 논란을 야기 했던 유언비어.



# 졸업, 책과 여행으로 restart해요



## 책 / 청춘의 시기에 공감하다



<졸업 : 설월화 살인 게임>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출판 현대문학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 형사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인 ‘졸업’은 형사가 되기 전, 가가 형사의 대학 시절과 그의 친구들이 졸업식을 앞두고 벌어진 이야기를 그려낸 청춘 미스터리다. 과거와 이별하고 불안한 미래를 코 앞에 둔, 마치 취업도 연애도 은통 고민 투성인 혼란의 시기인 졸업식을 앞둔 우리의 현실을 자화상처럼 그려냈다. 청춘 자체가 불안정하고 미스터리 투성이니 추리물과의 만남이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린다. 책의 내용은 보통의 추리물과 똑같다.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가 죽고 남겨진 단서를 통해 범인을 잡는다’라는 레퍼토리를 따라간다. 조금 다른 점은 대학 졸업을 앞둔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이다. 추리 소설을 읽는 가장 큰 재미는 ‘who done it? why done it? how done it?’ 3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

인이 누구고, 왜 범행이 일어나며, 어떻게 범행이 일어나는지를 알아 가는 것이 추리 소설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3가지를 가지고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보자. 이야기의 시작은 한 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7명의 T대학 졸업반 친구들. 그 친구들 중 한 명인 쇼코가 졸업을 몇 달 남겨두고 자신의 원룸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의문스러운 죽음 앞에서, 친구들은 바쁜 취업 준비 틈틈이 쇼코가 죽은 이유를 캐고 다닌다. 하지만 타살이라면 밀실인 쇼코의 원룸을 드나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자살이라고 해도 쇼코의 연인인 도도조차 모르는 자살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진척 없이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남은 친구들은 은사인 미나미사와 선생님 맥에서

다도 모임을 갖는다. 제비뽑기를 해서 차를 마시는 사람, 차를 찢는 사람, 다식을 먹는 사람을 정하는 ‘설월화 의식’을 진행하던 중, 또다시 충격적인 살인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모인 사람 중 한 명이 차를 마시고 쓰러져버린 것. 피해자의 자살인가? 아니면 치밀한 트릭이 사용된 계획 살인인가? 과연 살인 게임의 진상은 무엇일까? 이 책의 포커스이자 범행의 동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관계’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정을 나눴은 친구와 동시에 대학교 졸업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과 사랑,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관계다. 어쩌면 이런 관계 속에서의 고민과 갈등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일련의 성장통과 같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이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아질까요?’라는 극중 인물의 물음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불안정한 심리를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부찬우 기자

## 여행 / 새로운 만남 속 현재를 즐기다

“열심히 꿈을 위해 달려온 당신, 떠나라!” 세상이 정해 놓은 속도와 규격에 꼭 모든 사람이 몸을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 반향 혹은 객가라고 불러도 좋을 청춘의 흑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9월은 바닷가를 여행 가기에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계곡을 찾아가기도 철이 지난 것 같은 기분이다. 여름과 가을의 중간



베네치아의 푸른 강 위에 많은 관광객들이 곤돌라를 타며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있다.

독한 통과예례를 거치지 않고 이른 흥내부터 내면 뒤늦게 부작용이 생기기 십상. 앞으로의 고민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을 벗어두고 잠시만의 일탈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국제 유가 하락으로 9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의 모든 노선 유류할증료도 ‘0원’이 되니 떠나기에 절호의 기회다. 새로운 만남과 색다른 경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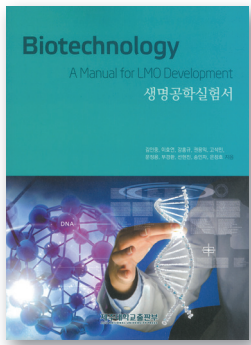
에 위치한 9월은 더워도 남아 있고 아직 가을의 기운을 기대하기에도 이른 시기라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해외를 고민 중이라면 이탈리아 속 꿈의 섬,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어떨까? 9월의 베네치아는 한국의 가을 날씨

와 같다. 캔버스 안 수채화와 같은 중세풍의 건물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사이로 질퍽한 하늘과 거미줄처럼 마을을 따라 흐르는 수로가 아름다운 곳. 특별한 여행 계획 없더라도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거리를 가득 채운 볼거리와 활기찬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어쩌면 순식간일 것이다. 수로 위를 달리는 곤돌라와 바포레토(수상버스)가 차를 대신하고 있고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 표현한 산 마르코 광장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9월의 베네치아가 더 특별한 이유는 9월에만 열리는 축제들이 있어서다. 홀수 해의 6~10월에 펼쳐지는 세계 3개 비엔날레로 불리는 국제 미술전,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열린다. 올해는 ‘모든 세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베네치아 전역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 다른 축제로는 1932년에 시작돼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매년 9월 초에 열리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가 있다. 올해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고 한다. 베네치아 속에서 열리는 문화의 향연 속에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부찬우 기자



###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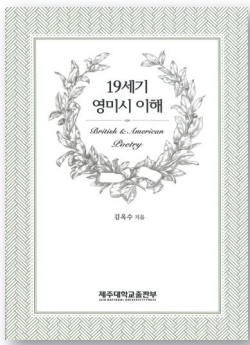


#### 생명공학실험서

| 김인중·이효연·강홍규·권용익·고석민·문정용·부경환·  
선현진·송인자·은창호 공저 | 199페이지 | 17,000원 |

제주대학교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감귤분자육종실험’과 제주대학교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에서 ‘GMO 실험서’가 발간된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서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실험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각 생명공학실험에 따른 목적, 적용, 원리 등을 중심으로 실제 실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도서를 통해 학부과정에서도 분자생물학실험 등의 실험수업에 쉽게 적용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하였고, 대학원 과정이나 연구원들도 참고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19세기 영미시 이해

| 김옥수 지음 | 311페이지 | 15,000원 |

19세기 영미시 이론서이다. 19세기 영미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대조해가며 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주제 및 시의 기법 등을 학습자들이 보다 철저하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편마다 시인의 생애와 어구해설, 그리고 줄거리, 시의 형식 등을 게재하였다.



#### 동양 도덕 교육론

| 강봉수 지음 | 422페이지 | 20,000원 |

그동안 저자가 연구해온 동양전통의 윤리학에 바탕을 둔 도덕교육의 패러다임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서 가정하는 동양전통의 도덕교육론 패러다임의 갈래는 세가지이다. 자율적 도덕발달론, 도덕적 사회화론, 자발적 도덕직관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갈래에 따라 이 책에서는 공자, 노자, 맹자, 주자, 퇴계, 율곡, 왕양명 등의 윤리학과 도덕교육론을 탐색하고 있다.



#### 시민 교육의 성찰

| 변종현 지음 | 390페이지 | 20,000원 |

근대 이후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성립된 시티즌십의 의미와 내용이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시민임’ 혹은 ‘시민됨’의 의미와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시민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시티즌십’에 관한 새로운 성찰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 교육의 성찰』은 시민교육에 관한 필자의 그동안의 논의 결과들을 단행본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